

## 미술자료 인간 컴퓨터

국립현대미술관의 움직이는 기록실 김달진씨



김 달 진

## 젊은 문화 주역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달진(金達鎭, 36)씨는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서울의 주요 전시장을 돈다. 그가 보지 않고 넘어가는 전시회는 거의 없다.

부지런히 발로 뛰고, 그렇게 해서 모은 전시자료들을 꼼꼼하게 분류·정리해놓은 김씨는 미술계에서 「자료컴퓨터」로 불린다. 작가 이름 하나만 대면 그에 관한 사항이 주무뎌 나오고, 전시회 관련 사실들도 줄줄 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미술잡지나 연

감, 도평본가들의 글들에 자료제공을 도와야 한다. 빛을 발하지 않는 곳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는 숨은 일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료에 대해 무관심하게 안타까웠어요. 전시회 팸플렛이나 일서품이 모두 하나의 역사인데 정확한 자료의 정리와 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으니까요』

김씨는 원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고교를 졸업

따로 팔라고 서점주인에게 떠론 쓴 적도 많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모으는 재미로 출발한 자료수집이 이제는 원칙으로 굳어졌다.

김씨는 그동안 꾸준히 정리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술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발표했다. 85년 계간 「선미술」에 팸플렛에 나오는 작가 경력의 허구성을 꼬집은 「관람객은 속고 있다」로 관심을 모은 후 계속 문제점들을 글로 지적해 당사자들로부터 미움을 산 적도 꽤 있다.

매주 쇼핑백 들고 전시장 순례  
분류 정리해 전문가들에 제공

하고 미술잡지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는 미술이 너무 좋아 「미술관의 청소부가 꽤도 좋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다 8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채용됐다. 그는 올해 뒤늦게 서울산업대에 입학해 미술공부를 하고있는 만학도다. 지난 85년엔 정확한 자료정리를 위한 준사서 자격증도 뒀다.

김씨의 미술에 대한 열정은 중학생때부터였다. 잡지들에 실린 명화들이 좋아 다크는대로 모으기 시작했고, 일간잡지를 한권 살 돈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 책속에 그림만

「전시회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살아있는 미술사료의 기록자」란 말을 듣는 김씨는 외모도 멋지지만 매우 겸손한 성격 때문에 때때로 나이대칭을 못받곤 한다.

그래도 그는 허드렛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남편의 일을 이해해주는 부인 최현희(崔賢熙, 31)씨와 남매가 있고, 또 미술자료에 파묻혀 사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李 鴻기자]